

성담론의 유형과 지배담론의 구조: 문화심리학적 분석

장 훈 · 김정 운
고려대학교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사람들의 성에 관한 의식을 네티즌들이 구성한 담론을 통하여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갑숙의 성체험 수기로 인해 야기된 네티즌들의 반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성담론의 양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인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 담론은 네 가지 유형("개인적-공개적", "개인적-비공개적", "사회적-공개적", "사회적-비공개적")으로 나뉘어진다.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앞의 유형 분석에 기초한 담론분석이다. 성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관련된 담론분석에서는 여성-남성 이분법에 기초한 억압구조가 성인-아동의 이분법과 같은 또 다른 억압구조와 어떠한 방식으로 맞물려 지배 담론 형성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변인에 기초한 양적 방법론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성에 대한 한국들의 논의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 구조를 잘 보여준다.

I. 성담론의 문화심리학적 접근

1999년 최다관객이 동원된 영화는 '쉬리'가 아니라 'O양의 비디오'라는 농담 같은 진담은 한국사회의 성에 대한 굴절된 관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이어서 불거진 O양의 인권문제나 사

건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윤리적 차원의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남의 침실을 훑쳐보려는 집단적 관음증을 오히려 부추기는 효과를 낳았다. 한국인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몇 년 전 인터넷 상의 한 누드모델에 불과한 이승희에 대한 한국인들(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남성들)의 비정상적인

관심과 O양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의 차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승희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모델’,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일어서 성공한 여성’으로 칭송되며 매스컴의 지대한 관심과 환대를 즐긴 반면 O양에 대한 관심은 ‘도대체 어떤 여자인 걸래’라는 치기어린 호기심이 대부분이었다.

O양에 대한 관심이 감각적인 호기심의 차원에 불과했다면 이어서 터진 ‘서갑숙 사건’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경험을 책의 형태로 공개했다는 사실에서 호기심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움도 함께 안겨 주었다. 당혹스러움이란 소극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한국여성의 성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이야기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야기된 여성의 성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1999년을 떠들석하게 했던 서갑숙의 책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에 대한 사회의 반응, 특히 네티즌들의 토론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네티즌의 반응은 실험실이나 설문지와 같은 인위적 상황에서 이끌어 내어진 반응이 아니라 익명의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실험실효과나 기대효과에 의해 기초자료가 왜곡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서갑숙의 책에 대한 논의의 양상을 분류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심리학이나 기타 사회과학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라 한다. 이 때 질적 연구방법이란 변인 중심의 연구방법인 양적 연구방법과의 대립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 사실 양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위와 같은 주제를 접근하는데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논의과정에서 변인을 정의하여 추출해내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변인이 쉽게 정의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흔히 변인이란 여성-남성, 한국사람-미국사람, 아동-어른 등과 같이 큰 어려움 없이 정의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구분들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들을 자연적인 범주, 생물학적 범주로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Ratner, 1997).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여성의 생물학적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이 자연적이고 보편 타당한 변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해체하려 한다(Walkerdine, 1993). 페미니스트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문화심리학¹⁾ 또한 남성-여성, 한국인-미국인 등과 같은 변인을 자연화, 보편화시키는 양적 연구방법론의 오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연구를 변인에 대한 규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는가’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남성-여성의 변인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이 사회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며 규정되는가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심리학적

1) 문화심리학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오히려 문화심리학을 하나로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문화와 심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양상을 문화심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문화심리학적 접근방법이란 김정운, 한성열(1999)의 글과 최상진(2000a), 한규석(1999) 등의 글에 나타난 문화심리학 및 한국인 심리학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접근의 가장 대표적 방법론은 담론분석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이야기되는 방식(how to speak)'에 관한 연구를 담론분석이라 한다(Parker, 1994). '담론(discourse)'이란 폭 넓게는 어떤 특수한 주제를 말하고 생각하며 재생산하는 것과 같은 '언어를 통한 지식생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생산의 과정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보편 타당한 진리의 생산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지식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미생산의 노력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고 각 주체들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권력생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Foucault, 1976). 예를 들어 우리는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을 의사(義士), 즉 '의협심 있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칭송하며 그의 행동을 의로운 행위로 이해한다. 반면 일본인들에게 안중근은 무자비한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한 한가지 '사실-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즉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사건의 '진실'은 달라진다.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인가 의사인가의 논의과정에서 이토오 히로부미가 살해된 사건 자체는 어쩌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진리'는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인가 의사인가와 관련되어 있지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구성자-발화자의 사회역사적 위치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으로 규정되는 딜레마적인 것들을 Foucault(1971)는 담론이란 용어를 통해 설명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테러리스트-의사와 같은 경쟁적인 담론은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진리란 권력에 의해 규정되며 다시 권력을 규

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남성-여성의 이분법이 어떠한 권력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이분법의 무비판적 사용은 그 권력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글은 서갑숙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즉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즉 서갑숙을 '여성 또한 성의 주체임을 용기 있게 외친 선구자'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상업자본주의의 놀음에 자신의 은밀한 경험까지 상품화한 철부지'로 규정하느냐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 글의 두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이야기하느냐 의사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Strauss & Corbin, 1990)'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거해 담론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근거이론이란 어떠한 방식으로 이론이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 즉 그 현상에 속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발견되고, 발전되고, 잠정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는 해석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²⁾ 이차적으로 근거이론에 의해 분류

2) 이 방법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알맞은 연구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하여 개념을 붙여나가 고, 후에 이러한 개념들을 상위 범주로 묶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개방코딩이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야기전개의 핵심 축을 잡아내는 축코딩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축코딩 단계에서는 이 만들어진 범주들 사이에 관계를 찾아나가게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선택코딩과정을 하

된 담론의 유형을 다시 담론분석의 자료로 삼고 성에 대한 논의 방식이 전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특징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유니텔 토론마당(서갑숙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논평): 이 자료는 서갑숙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의 시각과 성담론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자료로 써 쓰였다. <42사례>

• 인터넷 사이트 : <http://hanyang.ac.kr/women> file, <http://miclub.com> 등에서의 성에 대한 토론 <2사례>

• 일간지 기사 : 동아일보, 문화일보, 주간매일신문 : 주로 일간지로 구성된 위의 자료는 성담론을 구성하는 각계의 주장을 알아보고, 이것이 네티즌의 성담론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쓰였다. <10사례>

II. 성담론의 유형분석: 서갑숙사건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성담론은 유니텔 토론마당에 서갑숙에 대한 논평을 기초로 해서 신문, 잡지들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유형분석에 있어서 서갑숙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데, 그 이유는 타 자료에서 보여주는 획일적인 담론이 아니라 다양한 담론이 나타나고 있고 타 자료보다 보다 크게 이슈화되어 충분한 자료가 확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이버상의 토론

게 된다.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나, 범주를 선택하여 그것을 다른 범주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자는 근거에 충실한 구체적 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Strauss & Corbin, 1990).

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토론의 양상이 다양하며 성담론의 기피대상인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현실적인 사건에 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영화나 연극과 관련된 추상적인 성담론 보다는 네티즌의 일상 의식에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유니텔 토론 마당에서의 토론으로부터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0)에 의해 귀납적으로 정리된 성담론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져 각기 네 가지 담론의 유형이 분류되었다. 첫번째 차원은 성의 책임의 영역과 관련되어 개인사회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두번째 차원은 성의 표현양식과 관련되어 공개적-비공개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두가지 차원이 조합을 이루어 네티즌의 성에 관한 토론은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성은 개인적-공개적이어야 한다.
2. 성은 개인적-비공개적이어야 한다.
3. 성은 사회적-공개적이어야 한다.
4. 성은 사회적-비공개적이어야 한다.

한편 각계 언론 등에 나타난 반응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상의 차이와 표현의 문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론화 과정의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1. 제 1 유형: 개인적 - 공개적

제 1 유형은 억압된 성과 한국인들의 성에 대한 표리부동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에게 있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원인을 가부장적 사회와 미성숙한 성 의식을 이유로 든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가 가지는 이중잣대, 전통적 윤리관 즉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각각 다른 기준의 적용이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상성에 산재한 성을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은밀한 영역에 국한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억압된 성과 표리부동한 성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서의 성을 강조하고, 성담론을 공론화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체적 성의식 확립하고, 성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담론의 제 1 유형이 근거하고 있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권리인 성이 사회적으로 억압되어선 안 된다.

한국사회의 성문화는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그 결과 성에 대한 표현이 폐쇄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형성된다. 이러한 억압된 성문화는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막는 관습의 형태로 유지된다. 특히 이러한 관습은 비공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성의 이중적인 성생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성의 성생활은 억압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성과 관련하여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서씨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텔런트가 공인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TV 브라운관이라는 가상현실 속의 존재다. 드라마 속의 역할과 현실의 사생활은 분명히 다르며 자신의 사생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동아일보, 1999/10/28, 김지룡>

• 아이의 인생이전에 서갑숙이란 여자의 인생이 있지 않았던가? 서갑숙은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던 것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성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모든 감정이 함께 간직 되어 있는 것이다. 밝은 곳에서 성에 관해 교육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이중 잣대로 성을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그녀는 그녀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 이 책의 그녀의 삶을 욕하거나 나쁘다고 할 순있다. 그러나 책이 못나오게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유니텔 토론마당>

• 자식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식에게 있어선 또 마찬가지로 부모의 삶보단 자신의 삶이 중요하듯... 서로가 상대방의 삶의 끌려 다니는 것 보단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서로에 대한 집착도 원망도 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서갑숙이라는 여성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씨가 그런 행동을 하던 말던 우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남들을 챙기셨나요 남 말하기 좋아 하는 민족습성일까요 <유니텔 토론마당>

• 이 정도의 책을 가지고... 서씨가 '나도...'를 쓴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가슴 벅찬 사랑의 진리를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저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책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 행위를 공권력이 억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동아일보, 1999/10/25, 유시민>

2) 모든 판단은 수용자의 몫이다.

이 관점은 앞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지지해 주는 주장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판단은 수용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까닭에 성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도 누려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 즉 수용자를 성의 자극적 표

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어이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앞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보완하는 주장이다. 요약하자면 성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은 더 이상 전달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수용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읽고 싶은 사람은 읽고, 비평하고 싶은 이는 비평하고, ...그 와중에 정신문화도 진통 겪어가며 성숙하고. 이러다 보면 여지껏 특하면 무엇이네,무엇이네,하는 우리네 썩은 노친네들로 부터 짓눌려 제대로 성숙치 못한 분야의 문화가 차츰차츰 현대화되어 가고 불필요한 고리타분한 사고방식들은 노친네들의 무덤 속으로 따라가고 현실에 필요한 문화가 자랄 잡겠지. 세상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니깐! 사고도 바뀌어야겠지. 누가 뭐 눈에는 뭐 만 보인나...소설... 시각적 차이겠지 보는 이에 따라서.. <유니텔 토론마당>

• 그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고백한 책이.. 그녀 자식들에게 단지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유니텔 토론마당>

•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 나이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물론 미성년자에게 곤란한 책이라면 **판대**를 미성년자에게는 못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외설인지 예술인지의 판단은 이것을 읽고 **판대**야 할 독자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돈을 주고 사보는 것은 독자이고 그걸 돈 주고 살지 안 살지 결정하는 것 역시 독자이다. 판매불가니 위법이니 하는 개소리는 하지 말아라. 예술과 외설의 잣대는 개인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하는 것은 섹스와 무관한 것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구성애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노골적이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사건과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술이나 포르노나는 그것을 읽는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3) 문화는 다양해야 한다.

성에 대한 개인주의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조류로 문화 다원론적 입장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의 담론의 주제가 보다 다양할 것을 요구하며, 성 또한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성에 관한 논의를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윤리관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으며 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21세기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 자신의 섹스라이프에 대해 **주류적 가치가 아님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여자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에 대해 그 자유로움을 빌려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문화는 삶의 방식이다. 당신이 **문화 다원론자**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유니텔 토론마당 >

• 윤리는 뭐가? 옳은 것 아닌가? 성이 억압되어 있던 구세대 윤리는 이제 약해지고 있다. 구세대 윤리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구시대 윤리를 계속 적용시키려 하는가? **윤리도 변해야 하고** <유니텔 토론마당>

• 섹스는 본능이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의 섹스파트너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치만, 인류는 '일부일처제'의 생활양식으로 정착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별 무리를 빚지 않을 것이다. 그치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왜 **사람은 다르니까**, 을 알고 있다.<유니텔 토론마당>

• “徐씨의 경우만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계**에는 더

자극적인 책들이 나올 텐데 이를 검찰의 단속이나 검열로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며 사회 내에서 성의 표현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1999/10/26, 정파리교수>

2. 제 2 유형: 개인적 - 비공개적

성이란 개인적이며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은 앞의 제 1 유형과는 달리 보다 보수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성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성의 상품화로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즉 성에 관한 공개적 논의가 성의 상품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유형에서는 상품자본주의 발달에 기인한 성 상품화(특히 여성의 성 상품화)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사랑하는 남녀간의 은밀한 대화로서의 성은 상품화되어서는 안되며, 상품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성의 공개적인 취급은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제 2 유형은 대중매체로부터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의 성 모방심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주장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를 경계해야 한다.

상품자본주의 팽창과 더불어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간다.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자본의 통한 교환의 대상은 상품이다. 은밀하게 진행됐던 성의 상품화는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폭발적인 팽창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은 자본주의 발달과 톱니처럼 맞물려 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대

중매체가 전달하는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중매체의 논리, 자본에 논리에 의해 조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가부장적 사회의 이중규준을 강화하고 여성의 상품화를 다양한 논리로 정당화한다.

• 남자는 여자를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심지어는 강간을 묘사하는 상품광고와 강간을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다른 형태"라는 표현과는 달리 TV나 영화에서 눈요기 거리나 흥미 거리로 보여지는 현실이 지금 대중매체의 현실이죠 <유니텔 토론마당>

• 최소한 아내 외의 여자와 바람 편 얘기를 공공연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고, 술 먹고 창녀촌에서 여자를 사는 것이 술 마시는 것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일개 "야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니텔 토론마당>

• 그럴 수 있고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표현의 자유'의 정의와 함축의 미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이 경박스러움이 지겹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구. 표현의 자유는 얼어죽을 표현의 자유. 상업주의, 천민적 자본의 논리(목표는 항상 돈), 거기에 스타의식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내놓는 게 우리나라 요즘 '성적 자유'를 표방한 상품 아닌가? <유니텔 토론마당>

• 창녀도 갑숙이 만큼 인생여정의 질곡이 많은 여자야. 창녀도 애뜻하게 사랑하는 남자도 있는 법이야. 그렇다고 잘 낫다고 책으로 쓰지는 않아. 그런 경험은 혼자 지니면 되는 것이지 왜 책으로 내는지 알 수 없어. 많은 남성을 자극 시키려고? 아니면, 색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유니텔 토론마당>

• 사회를 발라 뒤집었던 '빨간마후라' 사건을 기억하시겠지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소위 정상 생활에 복귀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사건 말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부모를 인터뷰하던 사람들이 바로 언론이었죠. 다들 세상 망쪼라는 등 하면서

그들을 몰아쳤고 애매한 범조항을 들어 체포했죠(원래 음란물 유포는 죄가 된다는데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제작은 죄가 되지는 않는다면서요?) 그 후로 본격적으로 '빨간 마후라'의 유통이 되었죠.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요즘 가끔 메일로 오는 백업 시디 리스트에서 비디오 시디 부문에서 빠지지 않는 국산 포르노의 명작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되니까 판다고 파는 사람만 탓할 수는 없죠 <유니텔 토론마당>

2)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더욱이 개인의 성생활의 공개는 개인의 피해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 어떠한 것이나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자신의 사생활을 스스로 상품화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다.

• '성행위'는 하나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은밀하다는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속하거나 음지의 대화**는 아닙니다. <유니텔 토론마당>

• 기가 막힐 노릇이다... 뭐가 **사랑이라고**... 뭘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사람들은 성에 대해선 년 질 머리가 날 정도로 다 알고 있다... <유니텔 토론마당>

• 자연스러운 욕구를 발산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아줌마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을 빨면서 밖에서 돌아다니신다면 기분이 어떨는지. 먹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고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유니텔 토론마당>

• 서갑숙씨! 때때로 포르노그래피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해. 안 말려.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해도 안 말려. 하지만 **책으로** 쓰지 말고 당신 **일기장에** 써 줘.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안 사 보면 될 거 아니냐고 안 사 봐도 어쩔 수 없이 알게 돼. **상업주의 언론**들과 그 책을 팔려는 자들이 입소문을 내 의도적으로

귀에 들어오게 만들거든. <유니텔 토론마당>

3. 제 3 유형: 사회적 - 공개적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그 주장의 방식이 첫 번째 유형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처양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인 교육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제 3 유형의 논의 방식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교육을 중심테마로 잡고 있다. 성교육을 비롯한 성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인 형태를 띠지 않으면 결국 성문화는 밀실화되어 오늘날의 우리사회와 같은 이중적인 성문화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밀실에서 행해지는 성문화는 '내 여자는 안되고 남의 여자는 된다'는 식의 남성의 이중의 잣대에 의해 강화된다. 남성들이 자유롭게 밀실화된 성문화를 즐기고, 이러한 점은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적인 주장이 된다. 따라서 성에 관한 논의를 밀실에서 공개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내어 더 이상 퇴폐적이고 불건전한 성문화가 성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음과 주장을 한다.

1) 음침한 성문화와 남성의 이기적인 기준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음침한 성문화는 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억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이전은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게 나타나는 데, 기생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된다는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이 더 확대되어 '내 여자는 정숙한 여자야만 하고, 다른 여자들은 모두 기생

이어도 된다는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성을 배우자 외의 사람과 단순히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 마치 볼링이나 테니스 치듯이 - 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또 소위 창녀촌이나 톰싸롱 등에서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한 “남자”들이 북적거리죠 그리고 바람 피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한 두 번의 외도를 이해 못하는 여자가 이상한 것이고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되고 여자에게 순결을 요구하려면 남자가 먼저 순결해야 합니다.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니텔 토론마당>

•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성을 관리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순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우리가 진정 자신과 가족의 삶을 사랑한다면 성을 상품화 또는 천박하게 격하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께서 뜻하는 바 대로 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부부의 관계를 원만히 하며, 서로의 사랑을 성숙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서 우리사회는 신뢰와 사랑이 싹트는 건전한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유니텔 토론마당>

•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비밀시 했기 때문인지 더욱 관심이 있어 하고 더욱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조장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유니텔 토론마당>

2) 공개적인 성교육이 해결책이다.

비정상적인 퇴폐적 성문화는 성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전통적 도덕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편견은 성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 영역에서 추방했으며 그 결과 교육되어야 할 성과 관련된 지식마저도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성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조차 공개적 영역에서는 기피

되어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비정상적이고 퇴폐적인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따라서 다소간의 문제가 따른다 할지라도 성 관련 지식의 공개적 습득은 장려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 두 아줌마이 표현이 싫다면 **아우성이아줌마에게는 죄송)** 경제적인 결과는 같았을 지라도 그 과정은 너무도 다르다. 그리고 아마 **목적과 의도도 달랐으리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돈을 벌기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랑 명분을 위해 뛰어오다 돈을 번 사람이랑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니텔 토론마당>

• 더군다나 **청소년에게는 올바르게 건전한 성의 이미지를 먼저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무작정 전한 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성에대한 억압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유니텔 토론마당>

• 서갑숙씨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은 우여곡절을 겪다 새롭게 맞은 **사랑의 환희를 신중하게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성고백이 완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헤어진 아이들과 남편에 대한 아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불안정성, 죽을 때의 후회 등. 많은 사람들은 부부간의 진정한 성담론도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당신은 여성이 쓴 성고백서라 더 야단들을 떤다고 억울해 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부장적인 요소가 아직도 강력히 남아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기에 여성이 주관하는 성담론은 소중하고 신중하게 가꿔야 합니다. 진정으로 변해야 될 남성들에게 있어 우리 여성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공인의 역할은 더욱 그렇지요** 속이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 성문화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어 한발짝씩 바꾸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너무나 급하고 튀었습니다. <주간매일신문, 1999/10/23, 구성애>

4. 제 4 유형 : 사회적 - 비공개적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성에 관한 공개적 논의는 서구적인 것이며 우리의 전통문화는 비공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논의 방식이다. 이 유형의 주장은 개인이기주의와 대중매체로 인한 전통윤리의 파괴에 따른 가족체체의 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맞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성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과도한 성적 자극과 서구의 무분별한 성문화의 유입은 전통적인 가족체체의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무분별한 모방과 호기심 자극하는 문화가 문제다

외국의 성 가치관의 무분별한 수입과 대중매체에 의한 확산,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다. 대중매체에 의한 성의 무분별한 공개는 호기심만을 자극할 뿐이며 윤리의식이 결여된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모방이 확대된다. 시대적 조류에 따른 외국문화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의 맥락에 맞지 않게 수입한 결과 기형적인 성문화가 형성되었다.

• 남자의 말초신경 자극하는 호기심 따위의 발상 아니겠어??? <유니텔 토론마당>

• 그런 경험은 혼자 지니면 되는 것이지 왜 책으로 내는지 알 수 가없어. 많은 남성을 자극 시키려고 <유니텔 토론마당>

• ‘표현의 개인적 자유 (또는 표현의 사적 자유)’와

‘표현의 보편적(책임있는) 자유’를 제대로 구분해 주길. ‘거짓말’의 장선우 감독, 걸핏하면 외국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 예도 들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겹게 반복하는데 그 사람 외국에 얼마나 살아봤어? 나 불란서에 7년 살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가지 않아. 너무들 밖의 실정을 몰라.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고 개들은 개들이지. <유니텔 토론마당>

• 아가씨, 호스트 바의 그놈이랑 자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도 개인의 자유 해방이니, 간섭이니 하고 탄소리들 하니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유흥숙박 문화는 쪽발이들 한테서 가져온 것들이죠 쪽발이들 에게 좋은 것 배울게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것만 수입하는 지 모르겠네요 <유니텔 토론마당>

2) 사회적 책임의식과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회복되어야 한다.

외국 정신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개인이기주의의 팽배 그리고 기형적인 성문화 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회복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되어야 한다. 성은 개인의 것 이전에 사회적 관계 내에서 규정되며, 그것의 표현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와 책임을 의식하지 않는 성은 방종에 불과하다.

• 전 아는 게 없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게 우리의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갑숙이란 여자는 그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머니랄 수 있을까? <유니텔 토론마당>

• 자신의 불륜을 미화 하는 건 아닐까,내 놓고 이야기 하면 로맨스가 되나? 과연 이 글을 읽고 동감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한가지만 묻고 싶다. 당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다. 그것이 민주적이든 비민주적

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고 희망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서갑숙은 그녀의 책으로 성문화에 대해 밝은 곳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책은 그냥 스포츠 신문의 1면을 장식할 수 있고 연예프로의 시청률을 올려줄 또 하나의 뉴스거리일 뿐이다. 또한 그녀는 이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녀는 **엄마와 아내와 여자로서의 역할을** 다시는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유니텔 토론마당>

•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연예인인 전 남편과 두 딸아이의 장래를 생각했다면 그런 책을 내지 말았어야 옳지 않을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엄마로서의 의무를 너무 쉽게 저버린 건 아닐까? <유니텔 토론마당>

• **자유를 말하려면 우선 자격이** 있어야지. 무슨자격?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소화하고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래야 남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 이게 바로 **책임의식**이야. 즉 자유는 책임의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지.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책임있는 자유"지. 책임이라는 게 뭐야?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 이진 책임하곤 상관없어. 안 지켜도 돼. 고매하고 숭고한 철학자라면 몰라도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야. 이진 남을 의식해야 돼. 왜? 남들은 나와 똑 같지 않아. <유니텔 토론마당>

•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성을 관리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순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우리가 진정 자신과 가족의 삶을 사랑한다면 성을 상품화 또는 천박하게 격하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께서 뜻하는 바 대로 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부부의 관계를 원만히 하며, 서로의 사랑을 성숙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비로서 우리사회는 신뢰와 사랑이 싹트는 건전한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유니텔 토론마당>

• 하지만 자녀와 부모의 삶이 어찌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전 가부장적인 봉건사회로의 귀속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녀의 삶이 따로 있고 부모

의 삶이 따로 있지만 공동체 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구성원이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구성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단지 그녀의 자식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는것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인생은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유니텔 토론마당>

• 그녀에 잘못된, 자기자신만을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모두가 피곤하다. 그 따위로 살려거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다 던져버려야 할 것이다. 이곳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아무래도 그녀는 이걸 망각한 듯 싶다. <유니텔 토론마당>

• 내가 마누라나, 지아비, 술집 아가씨, 호스트 바의 그 시기와와 비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했다고 합시다. 돈 많이 벌겠죠 그러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여파는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협오가 필요합니다. <유니텔 토론마당>

5. 네 가지 유형의 비교

서갑숙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난 논의의 제 1유형은 억압된 성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주의적, 수용자의 책임, 문화다원론적 입장을 취한다. 제 2 유형에서는 성상품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생활의 영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3 유형은 퇴폐적 성문화와 남성중심주의적 이중기준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명분을 갖는 교육적 차원의 성문화를 새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유형에서는 무분별한 성을 모방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전통적 가족주의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4가지 논의의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겹쳐지는 부분이 발견된다. 특히 표현적 기준인 공개-비공개를 각 주장은 전

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의 공개라는 전체하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느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논의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개인적-공개적)과 세 번째 유형(사회적-공개적)에서 우려하는 현상은 유사하다. 이 두 유형에서는 성의 공개적 논의를 억압함으로써 파생된 퇴폐적이고 이중적인 성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되어 두 유형은 대비되는 방식을 취한다. 첫 번째 유형은 급진적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공론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세 번째 유형에서는 교육적 목표를 위한 공개를 강조한다.

비공개를 주장하는 두 번째(개인적-비공개적)와 네 번째(사회적-비공개적)의 논의유형에서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무분별한 성문화를 우려하며 성에 관한 공개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성에 관한 논의가 비공개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의 성이 자본에 논리에 의해 상품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네 번째 유형은 방탕한 성문화의 대안으로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형분석 결과 전체적인 담론유형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다른 담론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에서 비판되는 성 상품화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기준의 문제와 청소년에 관

한 염려가 위의 네 가지 논의유형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은 문화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될 수 있다.

III.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성담론: 문화와 권력

독일의 문화철학자 짐멜(G. Simmel)은 문화³⁾가 발전해 가는 원리를 객관문화와 주관문화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능성들을 실현하고 현재의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인 침전물들을 생산해낸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의 삶의 침전물들은 인류를 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 즉 개인의 삶의 침전물들이 대상화되고 이는 다시 개개인의 삶 속으로 통합되고 융화되어 간다. 짐멜은 인간이 현재의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주관문화로 정의하고, 그 침전물으로써 만들어져 쌓이고 다시 각 개인의 삶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가는 과정을 객관문화라고 정의한다(Oakes, 1983).

3) 짐멜이 논의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 제도 등의 차이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문화의 개념과는 다르다. 짐멜의 문화개념은 한 개인의 활동의 산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외부세계에 존재하며 또 다른 개인이나 다음 세대들의 활동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증법적 문화관은 문화의 동적 개념화에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문화의 개념은 이러한 짐멜의 문화개념에서는 객관문화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객관문화는 주관문화의 소개로 주관문화에 통합되어 쓰임으로써 주관문화가 변화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 반대로 주관문화는 또 다른 객관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객관문화를 더욱 풍부히 한다. 따라서 주관문화와 객관문화는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과 문화역사적 환경이 관계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본래의 화합적인 형태를 벗어나 모순적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는 객관문화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주관문화에 통합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유의 범칙을 따라 움직여 나갈 경우 발생한다. 짐멜은 주관문화와 객관문화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객관문화를 절대화된 객관문화 또는 물상화된 객관문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주관문화와 객관문화는 더 이상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다. 주관문화와 객관문화는 권력관계에 의해 그 위상이 정해지고 주관문화는 객관문화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거치는 심리적 과정은 더 이상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화된 객관문화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되고 그것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보장 받고 보다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가장 쉬운 예는 '돈' 즉 자본의 논리가 그것인데, 애초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은 더 이상 주관문화에 상호 작용하는 객관문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문화로 하여금 자신으로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한다.⁴⁾

4) 이러한 짐멜의 문화관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계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상당히 유사한 설명 방식이다. 소외현상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분화에서 기인한다는 마르크스의 설명

1. 남성적 객관문화와 여성과 청소년

현대의 남성중심의 문화는 이러한 물상화된 객관문화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짐멜은 남성중심문화가 객관문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분업(분리영역 모델)에서 찾는다. 예를 들면 공사의 구별, 시장과 가정의 구분, 생산과 소비의 양분 등이 남성의 문화가 절대화된 객관문화로 굳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리영역의 모델은 이중적 도덕의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남자들은 권력과 시장이라는 공공 영역을 장악하는 반면 여자들은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선행위에 참여하도록 기대된다. 그 결과 현대 심리학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남성에게는 성취욕, 감정의 자제, 합리적 사고, 권위주의적 태도 등이 강조되고 여성에게는 자비심, 자기 희생, 감정, 복종적 태도, 감정 이입적 태도 등이 강조된다.

아울러 이러한 분리영역 모델은 청소년과 청소년문화를 특징짓는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른과 아이의 분리된 관념은 어른과 아이의 역할적 분리 나가서 어른에게는 일관된 이성에 의한 판단, 책임감, 성숙, 권위라 특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에게는 감정적, 무책임함, 미성숙, 교육되어야 할 존재라는 특성을 부여한다(김정운, 2000).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객관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여성의 특성과 청소년의 특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성인 남성들의 물상화된 객관문화는 절대적인 객관적 문화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미성숙하고 비이성

방식과 주관문화와 객관문화의 대립관계를 통한 짐멜의 설명방식은 변증법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적인 청소년 문화와 여성문화는 이러한 절대적 객관문화에 순응하도록 강요된다.

청소년 또는 아동과 여성의 성격을 동일시하는 방식은 은밀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되는 현대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의 광고에 나타나는 연약한 여성의 이미지는 아직 미성숙하고 순진한 아동 또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시에는 성에 대해 무지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또한 성에 대해 무지해야만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성'에 관한 객관문화의 자상한 배려는 결국 여성의 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억압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2. 절대화된 객관문화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담론

객관문화는 도덕적, 인식론적, 그리고 존재론적 인 의미에서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이 것들의 세부코드를 일상의 담론을 통해 은밀하게 재생산한다. 타인으로부터 인식되고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각 개인들에게 객관문화를 내면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 결과 각 개인은 자신을 담론의 “주체”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면화된 객관문화가 그의 성대와 혀와 입술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속성은 그가 습득한 객관적 문화와 구조에 의해 정의되며, 각 개인은 객관문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일상 담론은 이러한 객관문화의 재생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객관문화의 작동방식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통용될 것인가? 사이버 공간은 자신과 남의 신분을 노출시키

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익명의 장소로 여겨진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행해지는 행동은 객관문화의 권력기반이 되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노력과는 무관하다. 결국 타인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는 객관문화의 권력행사의 방식이 일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감시자의 시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객관문화는 네티즌 각자에게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행위의 결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아닌 행위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도처에서 네티즌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캉은 이러한 현실을 "개인은 기표(객관적 문화)를 잊지만, 기표는 개인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해준다(Fink, 1995). 실제로 '오양 비디오(한국일보, 1999/3/16)', '이승연의 불법면허(경향신문, 1998/8/1)', '백지연의 친자소동(문화일보, 1999/7/19)', '부유층 병역면제(조선일보, 1998/6/12)' 등과 관련된 네티즌의 담론형성 과정은 익명성으로 인한 자유로움보다는 기존의 객관문화를 대변하며 기존의 가치를 더 보수적인 형태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⁵⁾ 이러한 메커니즘은 서갑숙 사건과 관련된 네

5) N세대의 가치관을 연구한 김철민과 유승엽(2000)의 연구는 N세대의 가치관이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누리는 N세대 자체가 상품자본주의의 생산물이며 상품자본주의의 통제범위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획일화된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한 N세대의 반발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형태로 이어지지 못하고 청소년 힙합문화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획일화된 소비문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티즌의 반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분리는 객관문화로서의 남성문화가 여성문화를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여성은 남성문화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 날 때에는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이러한 제재가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에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의 논의방식이 은밀히 재생산하고 있는 객관문화와 이를 어길 때 나타나는 제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순결과 사랑의 이중기준

특히 남성중심의 객관문화가 여실히 들어 나는 점은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기준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남성과 여성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 여자라와 그 외의 여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의 남녀차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예를 들어 서갑숙의 책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데 반해 김지룡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책을 내놓았을 때 그의 책은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내부집단의 여성과 외부집단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즉 내가 결혼할 여자는 순결해야 하고 나와 관련 없는 여자는 성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방식의 담론이다.

육체적 순결에 대한 젊은이들의 견해는 적어도 의견상으로는 지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최근

경향신문 매거진X팁과 LG 애드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은 기혼의 41.6%, 미혼의 44.2%가 「처음 만난 사이라도 마음에 들면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자는 기혼의 75.3%가, 미혼의 74.1%가 같은 대답을 했다.(경향신문, 1999.6.07) 하지만 순결과 관련된 네티즌의 전형적인 담론형태를 살펴보자.

• 여성의 순결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렇게 순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네요. 근데 어딜가나 눈에 보이는 여관들은 밤이면 방이 다 찰까요? 다들 손만 잡고 자나... 남의 순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순결에 신경 쓰시다. 자신이 순결하다면 사회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남자들도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면 어쩔 겁니까. 새로운 여자친구한테는 다시 순결을 기대하겠죠? 그런 심보는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자들보다 훨씬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켜주세요** 설사 순결하지 않더라도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순결은 다시 생기는 겁니다. 물론 나이트 같은 데서 눈맞아서 매일 상대 바꾸는 여자아이들은 빼죠. 자신이 순결한 사람만이 상대의 순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hanyang.ac.kr/women> file>

• 저흰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문제입니다. 저희는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거의 손을 놓치지 않고 다니며 하루에도 많은 뽀뽀를 하죠. 작년 여름에 남자 친구와 2박 3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아무일도 없었죠. 제 남자친구는 **절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잘 수가 없답니다. <<http://midclub.com>>

첫번째 사례는 의견상으로는 순결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켜주세요"라는 대목에서는 남성적

객관문화를 은밀히 강요하고 있다. “지켜주세요”라는 대목은 여성이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만 순결을 선사 받을 수도 있고, 남성을 위해 순결을 바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을 “나이트 같은 데서 눈맞아서 매일 상대 바꾸는 여자아이들은 빼야죠” 라고 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순결에 대해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이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순결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잊지 않는다. 이는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객관적 남성문화의 척도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재생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순결과 관련된 담론은 남성의 객관문화가 여성들을 질서 지우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순결에 대한 모든 담론이 여성에게 향해져 있다.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순결담론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순결담론에 대해 어떠한 비판을 하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순결담론이 여성 스스로가 구성한 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결담론의 문제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부과한 의미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성을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은 언제나 성에 대해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마치 선문답에서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스승 앞에선 제자와 같이 여성은 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응답자일 뿐이다. 예에서 나타난 “지켜주세요” “절 너무나 아깁니다” 라는 대목은 사지선다형의 대답을 강요받는 수험생과 같은 여성의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⁶⁾

순결담론에 흡수되지 않고 순결담론의 형성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회적 금기에 속한다.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의 위협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금기의 영역, 즉 담론의 주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려 시도할 경우 처벌의 위협이 뒤따른다. 대부분의 경우 위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 텔런트 서갑숙씨의 성체험 고백에세이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파문의 원점에도 이 질문이 있다. 검찰의 ‘음란성’ 여부 내사의 대전제가 ‘**사회의 안녕을 위해 막아야 할 유해환경**’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1999/10/21>

• 검찰은 또 이날 서씨 수기를 입수, 자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각계 의견 수렴해 성체험음란성 판단” 텔런트 서갑숙(38)씨의 성체험 고백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씨 수기의 음란성 여부를 내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權在珍 부장검사)는 25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서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문화일보,1999/10/25>

2) 여성의 성담론의 볼모: 청소년

서갑숙 사건을 둘러싼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청소년보호의 문제이다. 서갑숙의 책이 위험한 것은 객관문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의 안녕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서갑숙씨는 연예인이다. **청소년들은 연예인 우상화 습성**이 있다. 연예인의 행태를 답습하고 모방하려는

6) 사지선다형 답을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주어진 답안 외에 영역에서 주체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제시된 답안 중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정답을 맞추게 된다.

심리가 강하다. 그룹섹스, 동성에 등 서씨가 고백해놓은 분방한 성적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곧바로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간행물윤리위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의 경우에 비해 서씨의 에세이집은 성적 묘사가 부분적이다. 검찰의 신중한 행보에는 이런 판단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1999/10/27,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

•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서갑숙씨의 행동은 법을 어기진 않았다. (18세 이상에게 책을 판다면) <유니텔 토론마당>

• 섹스는 어른들의 놀이에 불과한 것이다. 경건한 의식이 아니고 더러운 짓거리도 아니다. 그냥 섹스일 뿐이다. 여럿이 놀수도있고 혼자 놀 수도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는 업자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더러운 개새끼를 만들어 왕따를 시켜야 된다고 본다. <유니텔 토론마당>

• 포르노그래피이고 싶다 자나...포르노 소설을 쓴 거고 그러면 18세 이상부터 읽히면 될 거고 뭐가 문제인가 <유니텔 토론마당>

• 영화 '8mm' 내용 중에 포르노 영화배우를 시켜주겠다며 소녀를 유인해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性)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출판영상물 시장에는 서씨의 수기보다 몇 배 더 심한 음란물이 수두룩하다. 노골적 음란물은 그나마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지를 붙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지만 서씨는 이런 정도의 자기검열도 없었다. 청소년들은 모방심리가 강해 섹스산업에 희생될 우려가 있다. <동아일보 1999/10/23 이나미 신경정신과 전문의>

• 서갑숙씨의 인생은 막돼 먹은 인생... 객관적이고 올바른 윤리관 없이... 막쓴... 그런... 막돼먹은 글... 이라고...을 학교 윤리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유니텔 토론마당 >

서갑숙의 책과 같은 여성의 성담론이 가져올 지

배담론에 대한 위협은 청소년보호라는 전혀 다른 부분의 주제를 이끌어 오는 방식으로 방위된다. 왜 하필 청소년인가?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약자끼리의 대립구조는 객관문화에 대한 위협을 희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정치 역학관계에서 미국이 남한과 북한의 대립구조를 즐기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서갑숙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주장들도 지배담론에 의해 구성된 청소년에 대한 표상을 반복 재생산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부터 읽히면 될 거고 뭐가 문제인가"와 같은 주장은 "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안된다"라는 주장이다. 즉 청소년은 전염되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며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은 아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성인이 대신 나서서 판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는 성담론의 유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으로 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청소년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Aries(1965)의 잘 알려진 책인 "어린이의 역사"는 중세의 옛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한 가족관계, 사회관계에서 어떻게 '아동'의 개념이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이 사회 문화적인 변화과정이 산물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범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다. 아동의 개념이 구성되는 시기에 비로소 청소년기의 발견이 이루어

7) 여기서 필자들은 청소년보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하필 여성의 성담론과 관련되어 청소년보호의 문제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부각되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졌다고 할만큼 이 범주도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산물임을 관련 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다.⁸⁾(정유성, 1998)

Cohen(1997)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사회의 풍요와 더불어 안정이 찾아오면서 아이들의 수는 늘어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며 노동세계로의 전이과정이 복잡적으로 변화하자 청소년의 존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성인문화와의 갈등관계로서의 청소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전후에 시작된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청소년들의 기존 가치에 대한 거부 및 기존 객관적 질서에서의 이탈 등이 이른바 '문제범주'로 먼저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 전쟁과 불안 끝에 오랜만에 찾아온 풍요와 안정시기에 객관문화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저항과 이탈에 대해 어른 세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기존질서와 가치체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들면서 어른들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굳혀갔던 것이다.⁹⁾(Clarke et al, 1998) 그 결과 청소년을 탈선과 범죄의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은 현재의 지배담론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의 주장들은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이 어

떻게 이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 지난 10월26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텔런트 서갑숙(39)씨의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중앙M&B)에 대해 '청소년 유해간행물'이란 결론을 내렸다. 간행물윤리위의 민갑식 팀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따라 '음란도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출판사 측은 “일단 윤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전국 총판에 통보, 책에 랩을 씌우고 '19세 미만 구독 불가' 딱지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음란물이라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나도 때론...》가 일으킨 사회적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일보, 1999/10/23>

• 텔런트 서갑숙(38)씨의 성체형 교백서를 둘러싼 파문이 서점 가와 방송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KBS)는 22일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쓴 서씨에 대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도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책의 사회적 유해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는 23일 “문제의 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전량 반품했다”고 밝혔다. 반면 책을 떠낸 중앙M&B측은 “교보문고 측이 책을 19세 이상이 구입할 수 있는 전문도서 판매대로 옮겨 판매하겠다고 통고해와 이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책배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 양측사이에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간매일신문, 1999/10/23>

8) 간느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고소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춘향이로 분한 여주인공이 현재 고등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몽룡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감독측은 춘향이의 실제 나이가 이팔청춘 16세 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9) 그 결과 오늘날 '청소년'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문제' 또는 '범죄'라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IV. 마치며:

문화심리학과 페미니스트 심리학

위에서 우리는 서갑숙이라는 한 여성의 성체험을 보고한 책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서갑숙의 책으로 야기된 한국사회의 여성의 성에 관한 담론은 마지막에 청소년보호라는 차원과 연관되어 문제시되며 법적 처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과정은 이전에 일어났던 마광수나 장정일의 소설에 대한 논란이 표현의 자유나 포르노성 여부의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담론분석은 여성의 성에 대한 논의가 왜 하필 청소년의 유해성 여부와 연관되어 논의되는가를 주목하게 된다. 서갑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책을 쓴 것은 분명 아니기에 청소년보호의 문제와 연관지어 전개되는 논의의 방식은 더욱 생경하게 느껴진다. 당연한 듯 여겨졌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관한 논의와의 연결이 담론분석의 차원에서 보자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의 논리전개 배후의 숨어있는 의도에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단순히 남성중심주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설명방식이다. 이는 계급모순으로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문제를 엮어내려 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과 자본의 모순관계로 세계를 해석하며 변화의 전망을 제시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는 모순의 양상이 다원화된 현대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세계를 남성-여성의 이분법만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것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이외

의 문제들에 대해 외면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제시하게 된다.

본 글은 여성-남성의 이분법에 의해 야기된 여성의 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성인(아동)청소년의 이분법과 어떠한 방식으로 착종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성-남성의 이분법에 기초한 억압구조는 성인-아동과 같은 이분법에 근거한 또 다른 억압구조와 맞물려 지배담론 형성에 기여한다(Burman, 1994, 1996). 동시에 성인-아동의 이분법은 또 다른 방식의 이분법, 즉 서구-비서구의 구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서구를 발달이 완성된 성인으로 보고 비서구를 아동과 같이 아직 발달해야 하는 존재로 해석하는 19세기 인류학적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김정운, 2000).

서구와 비서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역사적 구성물인 심리학이 과연 객관적 과학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최근의 문화심리학적 논의들(최상진, 1997)은 페미니스트적 시각에 의해 보완될 때 그 논의의 방식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다. 한국의 아줌마표상에 관한 문화심리학적 논의(최상진, 2000b)는 이러한 시도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심리학은 여성-남성의 문제를 문화심리학적 주제나 환경심리학적 주제와 같은 보다 다양한 각도의 주제와 연결시켜 논의할 때 지배담론의 억압방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대안제시의 범위 또한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남성의 변인과 조작적 정의를 통한 양화의 원리에 충실한 실증주의적 심리학의 틀로부터 자유로운 '학문교차적(cross-disciplinary)' 논의방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운 (2000). 붕어빵과 아동. *문화와 사람*, 2, 223-243. 서울: 사계절.
- 김정운, 한성열 (1999).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철민, 유승엽 (2000). N세대에게 광고란 무엇인가? *한국 소비자·광고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n세대, n소비, n광고*. (pp. 46-79)
- 서갑숙 (1999). 나도 때론 포르노 그래픽의 주인공이고 싶다. *제이피유비*
- 정유성 (1998).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연구*, 28, 31-48.
- 최상진 (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삼자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자료집: 동양심리학의 모색*. (pp. 131-143)
- 최상진 (2000a).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b). '한국 아춤마론'에 나타난 사회심리와 약자 누명씌우기. *문화와 사람*, 1, 162-184. 서울: 사계절.
- 한규석 (1999).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자료집: 문화와 심리학*. (pp. 103-127)
- Aries, P. (1965).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Vintage.
- Burman, E. (1994). *Deconstruc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Burman, E. (1996). Local, global or glovalized? Chil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hild rights legislation. *Childhood*, 3, 143-164
-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8).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In Hall, S., & Jefferson, T. (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New York/London, Routledge.
- Cohen, P. (1997). *Rethinking the youth question*, London: Macmillan.
- Fink, B. (1995).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1971). *Ordre du discours*. Gallimard. paris
- 담론의 질서: 이정우 해설, 1993, 새길
- Foucault, M. (1976).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Harmondsworth: Pelican.
- Oakes, G. (1984). *Georg Simmel: On women, sexuality, and love*. Yale University Press.(게오르크 짐멜: 여성문화와 남성문화. 김희역, 1993, 이화문고).
- Parker, I. (1994). Discourse analysis. In Banister, et al. (eds.), *Qualitative methods in psychology: A research guid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Ratner, C. (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기타 자료

경향신문 1998, 8, 1일자	1999, 10, 25일자
1999, 6, 7 일자	1999, 10, 26, 충남대 정과리 교수
동아일보 1999, 10, 23, 이나미 신경정신과 전문의	1999, 10, 27, 강지원 청소년 보호위원장
1999, 10, 25, 유시민 시사평론가	조선일보 1998, 6, 12일자
1999, 10, 28, 김지룡 문화 평론가	주간매일신문 1999, 10, 23 구성애
문화일보 1999, 7, 19일자	한국일보 1999, 3, 16일자
1999, 10, 21일자	유니텔 토론마당(42사례)
1999, 10, 23일자	http://hanyang.ac.kr/women file
	http://miclub.com

1차 원고 접수: 2000년 8월 30일
수정 원고 접수: 2000년 11월 9일
최종 게재 결정: 2000년 12월 7일

Types of discourses on sexuality and the structure of governing discourse: a cultural-psychological analysis

Jang, Hoon · Kim, Chung-Woon

Korea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Recently, the narrative of sexuality is close to everyday life. Everyone has an opinion about sexuality and can easily express it in the cyber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tizen's discourses on sexuality in internet.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to classify categories of discourses on sexuality. Four categories are extract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They are namely, "Individual- openness", "Individual-not openness", "social-openness" and "social-not openness". The other is to make discourse-analysis in the basis of category-analysis. In here, the oppression structure based on dichotomy of women/men contributes to maintenance of governing discourse, being geared with another oppression structure like a dichotomy of adult/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s we can understand the subject well, making an approach with various viewpoints. For this, we need cross-disciplinary study free from the positivistic quantification of the variable and operational definition, the conventional psychological methodology.